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22 01 + 02 Vol. **186**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22 January + February 01/02 Vol. 186

이집의 짐은 높게
국민의 건강에 남게



영월 쉼다리
강으로 둘러싸인 마을 영월 주천면에서 만나는 쉼다리는 나무와 솔가지, 흙을 이용해 만든 자연 다리다. 해마다 늦가을에 마을 사람들이 통나무를 엮어 다리를 놓고, 여름 홍수에 떠내려가면 다시 만들곤 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22 01 + 02 Vol. **186**

발행일 2022년 2월 11일 통권 제186호 | 발행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 발행인 김선인 | 편집인 김한정
기획·디자인·사진 ㈜한강문화(02-511-9369) | 인쇄 (주)보명씨앤아이
고객센터 1644-2000 | ISSN 2384-40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온라인 홍보 채널에서도 다양한 건강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웹진: <http://hirasabo.or.kr>
• 심평원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ok_hira
• 심평원 공식 유튜브: <http://www.youtube.com/okyeshira>

*책자 오른쪽 상단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2차원 음성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EME

- 06 **인트로**
나와 지구의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
- 10 **테마 건강**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호르몬
- 14 **HIRA 빅데이터**
기온이 떨어지면 환자 수 올라가는 골절과 낙상
- 16 **공정한 평가**
노인 환자 사망률 높은 폐렴

WITH

- 18 **아름다운 만남**
대한민국 폐 이식수술의 개척자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백효채 교수
- 22 **현장 특특**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여는
튼튼한 수호천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 26 **우리집 상비약**
천식에 최적화된 약 흡입기

HIRA

- 28 **강원 투게더**
진정한 쉼을 알게 해주는 곳, 영월
- 32 **아무튼 우리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드는 DUR 관리실
- 36 **취미 부자**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은 가족공예
- 40 **그린라이프**
당신은 그린슈머인가요?



- 42 **같이 읽어오**
ONE PICK! 베스트셀러 책 네 권
- 44 **HIRA NEWS**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 및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등
- 46 **독자 마당**

정책 book in book

의약계 안내사항

- ① 2022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 ② 요양기관 차등제 신고방법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
- ③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안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웹진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카카오톡플러스 채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와 지구의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

건강한 환경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다. 지구가 건강하면 우리도 건강하다.
최근 환경파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면서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는 지구와 함께 건강해질 수 있을까?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쇼핑, 음식 배달, 가정 간편식, 밀키트 등 비대면 소비 추세가 확산하면서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있는 즉석밥이나 반조리식품이 담긴 폴리프로필렌(PP) 용기, 즉석조리식품이 담긴 폴리에틸렌(PE) 용기, 생수나 음료수가 담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용기, 일회용 컵이나 수저에 사용되는 폴리스티렌(PS) 등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이다.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를 이용해 합성한 고분자화합물로, 열과 압력을 가해 원하는 모양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다. 플라스틱은 내구성이 강하고 가벼우며 제조비가 저렴해 산업체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내산성이 높아 염산, 황산, 질산에도 잘 녹지 않으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철이나 유리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가공성이 좋아 복잡한 모양의 제품도 대량생산할 수 있고, 투명하거나 색깔이 있는 제품을 만들기 쉽다. 플라스틱은 천연 소재인 상아를 대체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는데, 비닐, 포장재 등에 상용화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었다. 현재도 새로운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단단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프탈레이트(phthalate)나 비스페놀(bisphenol) 같은 가소제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첨가제가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내분비계 장애(endocrine disruption)란 화학물질에 노출돼 생체의 항상성(homeostasis) 유지와 발달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생산, 방출, 이동, 대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탈레이트는 음식점 업소용 포장 랩, 화장품, 장난감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화학제품에서 다빈도로 검출되며, 이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남성호르몬의 기능을 억제하거나 성조숙증, 발달장애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비스페놀 A는 폴리카보네이트(PC) 플라스틱, 에폭시 수지 제조에 사용되며, 캔 음식의 내부 코팅제, 딱딱하고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영수증에서 빈번하게 검출된다. 비스페놀 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유사하여 우리 몸에 존재하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해 정상적인 여성호르몬의 역할을 방해하거나 남성의 생식기 발육 부전을 유발한다.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드는 자연

사용이 완료된 플라스틱 제품들은 재활용하거나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리된다. 매년 2억 톤 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 일반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 내놓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은 평균 90개가 넘는다는 보고도 있다. 플라스틱은 재활용할 수 있으나 경제성이 떨어져 재활용률이 높지 않으며, 90%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소각되거나 매립,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시설이나 매립지가 턱없이 부족하여, 소각이나 매립 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염소를 포함한 폴리염화비닐(PVC) 플라스틱을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 등 부산물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이옥신은 한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물, 공기, 토양 등 자연환경에 수습, 수백 년까지 존재할 수 있고, 방출 지역을 벗어나 멀리까지 이동할 수도 있다. 다이옥신류 물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2,3,7,8-테트라클로로다이벤조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며, 먹이사슬을 통해 생체 내에 축적되면 생식 이상, 암, 면역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전체 폐기물 매립량 중에서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피 기준으로 30~50%이다. 플라스틱 부산물과 첨가제로 인해 매립 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누출되면 지하수에 스며들어 호수와 강으로 흘러가게 된다. 폐기물은 분해될 때 화학적·생물학적 반응을 통해 온실가스로 알려진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폐플라스틱을 매립하여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환경오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일부는 바다로 떠밀려가 거대 쓰레기 지대(Great Pacific garbage patch) 등에 쌓이고, 이를 섭취한 생물에게서 소화기장애나 죽음이 유발되기도 한다. 또 커다란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 미세플라스틱이 되고, 이것들이 바닷속과 해수면을 떠다니며 해양생물에 유입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연쇄 과정을 통해 모든 영양단계의 생물에 축적될 수 있고, 결국 어패류를 섭취한 사람의 몸속에도 달한다. 미세플라스틱의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세포막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며, 독성물질이 흡착된 미세플라스틱이 세포막을 통과하면 신경계나 면역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의 활성화

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으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사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플라스틱은 장점이 많으나, 지구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①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노력, ②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생분해 가능 플라스틱의 개발, ③ 플라스틱의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을 낮추는 대체물질 개발이 절실하다.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은 얼마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된다. 그러나 10% 미만의 플라스틱만 재활용되고, 대부분은 소각되거나 매립지, 바다로 흘러간다. 지구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불필요한 과대 포장 줄이기 등을 실

천한다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을 간편히 하기 위해 먹는샘물과 음료병 용도에 유색 페트병 사용을 금지했고, 벗겨지지 않는 페트병 라벨 접착제도 사용을 금지했다. 식품용으로 소비한 플라스틱 용기나 포장재에 대해서는 식품 접촉에 따른 위생 문제를 우려하여 현재 화학적 재활용만 허가하고 있으나, 이르면 올해부터 물리적 재활용도 허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폐플라스틱 발생을 최소화하며 자원을 재활용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음료 포장재를 제조할 때 제품 라벨에 의무적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r-PET)의 함유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위생이나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장재의 재활용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일회용 페트병의 수거율을 높여 재활용하기 위해 보증금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2030년부터는 음료수병에 재활용 원료를 30% 이상 함유해야만 출시할 수 있다. 또 음식과 음료를 판매할 때 고객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필요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친환경 플라스틱이라 불리는 생분해성 플라스틱(biodegradable plastic), 바이오매스 플라스틱(biomass-based plastic)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대체 플라스틱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제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지만 일단 폐기되면 쉽게 분해되어 환경에 유해한 잔류물을 남기지 않는다. 플라스틱 폐기 처리에 따른 환경문제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소핑백, 플라스틱 소재 병에 생분해성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주 법안 및 조례 등을 통해 비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조 시 생분해성 소재를 30% 이상 함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사용 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수 있으나 생분해 조건이 까다롭고 내구성이 떨어져 여러 번 재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바이오매스는 옥수수, 밀 등 식물성 원료에 석유화학 물질을 첨가하여 제조되며, 첨가되는 물질로 인한 내분비계 장애 유발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사람과 생태계의 다양한 생물은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에 함유된 비스페놀 A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물리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비스페놀 F, 비스페놀 S 등이 대체물질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체물질의 독성이 원래 물질보다 작지 않음이 보고되고 있다. 대체물질을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도 내분비계 장애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이 함유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당장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는 것은 아니다. 몇십 년 후에 서서히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래의 건강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대체물질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진 후 시중에 판매, 사용되어야 한다. X

지경희

용인대학교 산업환경보건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환경위해관리를 위한 노출평가」, 「환경 독성학과 생태 위해성 평가」 등을 출간했다.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호르몬

현대인이 누리고 있는 편리한 생활은 상당 부분 화학물질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들어 화학물질 합성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의 생활수준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다. 값싼 합성비료와 농약 덕분에 대부분 국가에서 기아 문제가 해결되었고,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으로 일상용품을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물건을 아껴 쓰는 것이 더는 미덕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생활이 편리해지면 동시에 새로운 위험이 생겨난다.

DDT(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의 등장과 퇴출은 화학제품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기염소계 농약인 DDT는 탁월한 살충 기능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모기나 옷 예티가 전파하는 말라리아, 티푸스 등을 퇴치하는 데 널리 활용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나 6·25 전쟁처럼 위생이 안 좋은 시기에 감염병으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DDT의 살충 기능을 처음 확인한 스위스 화학자 파울 헤르만 뮐러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1962년 미국의 해양생물학자인 레이철 카슨이 저서 『침묵의 봄』에서 무분별한 DDT 사용에 따른 생태계 피해를 고발하면서 결국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다.

20세기 환경학 최고의 고전으로 불리는 『침묵의 봄』은 대중의 엄청난 호응을 받으면서 이후 환경 운동이 활성화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고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었다.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특징은 안전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화학물질의 장기적 피해 중 주목받는 것은 호르몬에 대한 교란 작용이다. 호르몬에 교란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용어는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이지만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환경호르몬'이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다.

환경호르몬은 1996년 테오 콜본 등이 저술한 『도둑 맞은 미래』에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침묵의 봄』의 후속판이라고 불릴 만한데, 태아기에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호르몬 교란 작용에 의해 전 생애에 걸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생식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크지만, 실제 위험성이나 독성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다.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위험에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생활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환경호르몬의 독성 기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인 환경호르몬

흔히 환경호르몬으로 불리는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학자나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 몸 안에서 호르몬의 생산·분비·이동·대사·작용 등을 방해하는 외부 화학물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목록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에서 참고하고 있는 세계야생생물기금(WWF, World Wildlife Fund)의 목록에 있는 물질을 주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DDT, 다이옥신, 비스페놀 A, PCBs, 프탈레이트, 벤조피렌, 수은 등을 포함하여 67종이 이에 속한다.

비스페놀 A는 플라스틱 용기, 음료 캔, 치과 레진 치료제, 영수증 등을 통해 노출될 수 있고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용기, 전기용품, 어린이 장난감, 의약품, 합성세제, 샴푸나 로션 같은 개인 위생용품 사용을 통해 노출될 수 있으며 과불화화합물은 포장지나 코팅 프라이팬을 통해 노출될 수 있다.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수 있는 물질을 나열하다 보면 환경호르몬이 없는 물건을 찾는 것이 오히려 손쉬운 정도이다. DDT, PCBs, 수은 등 많은 환경호르몬은 환경 중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생물체 내에 축적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공기와 물, 토양 등 여러 매체에 존재하다가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DDT와 PCBs같이 오래전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들

이 여전히 우리 몸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어떻게 호르몬의 작용을 교란하나?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은 특정 수용체에 결합하여 작용하는데,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외부 화학물질이 정상 호르몬이 결합하는 수용체에 결합하여 불필요하게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호르몬 유사작용). 예를 들어 발달 과정에서 환경호르몬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결합하는 수용체에 결합하여 활성화되면 나중에 불임 확률이 높아지고 암 발생 위험이 커진다. 환경호르몬은 정상 호르몬이 결합할 수용체와 미리 결합하여 정상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하기도 한다(봉쇄작용). DDD 같은 농약 성분은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의 작용을 방해하여 남성 생식기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해 기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환경호르몬은 정상 호르몬이 작용하는 경로에 개입하여 원래 호르몬의 작용과는 다른 영향을 나타내게 하기도 한다(신호전달 방해). 비스페놀 A의 경우 체세포에서 칼슘 대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참조). 이 밖에도 호르몬의 합성, 분비, 이동, 대사 등에 관여하여 호르몬의 작용을 교란하고, 호르몬수용체나 호르몬 작용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후성유전학적 변화를 일으켜 전 생애에 걸쳐 연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질환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앓는 병의 1/4 정도는 환경요인 때문에 생기고 암이나 호흡기질환 또는 심장질환같이 위중한 병의 80% 정도는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한다. 이런 병들의 발생 과정에서 내분비계의 이상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은 질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호르몬의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고 다른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질환이 환경호르몬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환경호르몬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연구된 질환들은 주로 생식기계 질환, 신경행동장애, 대사장애, 암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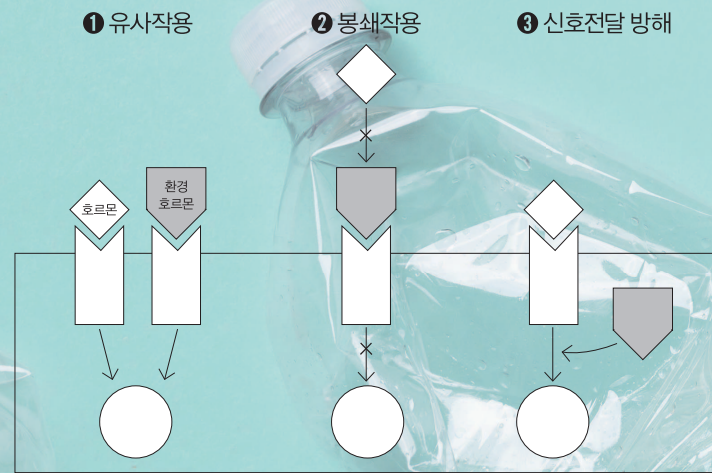


그림. 환경호르몬의 작용기전

남녀 생식기 기형, 불임 증가, 정자 수 감소, 조기 사춘기 등 환경호르몬의 영향이 동물실험과 역학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비스페놀 A는 난자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플라스틱 제조 산업에 근무하는 여성들에게 불임이 많다는 보고도 있다. 프탈레이트는 남자의 비뇨기에 영향을 미쳐 잠복고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호르몬은 뇌와 행동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아동들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자폐증과 우울증, 학습장애, 행동장애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환경호르몬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특히 변압기 절연유로 사용했던 PCBs는 환경에 계속 존재하면서 신경 발달을 저해하고 IQ를 낮추며, 집중력 장애, 운동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연제로 사용하는 불화화합물도 ADHD, 자폐증, 학습장애와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만은 일차적으로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고 운동을 적게 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지만, 환경호르몬도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사작용과 에너지 밸런스를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을 특별히 오비소겐(obesoge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불화화합물,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 다이옥신 등이 오비소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환경호르몬이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위중한 병은 물론 암이다. 대부분 암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요인이 상호작용해 발생하는데 전립선, 유방, 자궁, 생식기에 발생하는 암들이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환경호르몬의 영향은 노출 시기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태아기나 소아기에 환경호르몬에 높은 농도로 노출되면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받는다. 이때가 호르몬이 장기들을 형성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태아기나 소아기의 환경호르몬 노출은 선천성 기형, 발달장애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인생 후반기의 다양한 질환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

현명하게 환경호르몬 줄이기

환경호르몬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호르몬 성분을 함유한 화학제품을 피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환경호르몬이 포함된 제품이 워낙 많아 일일이 대처 방안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지만 큰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환경호르몬을 관리하도록 촉구하고 환경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한다. 둘째, 제품을 살 때 라벨을 읽는 습관을 갖는다. 사용하는 제품의 함유 성분을 확인하여 환경호르몬이 있는 제품은 피하고 개인 위생용품 사용할 때도 인공향이 있는 것은 피한다. 셋째, 패스트푸드를 피한다. 패스트푸드 포장지와 음료 캔의 코팅제에 환경호르몬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넷째, 농약 노출을 줄인다. 과일과 채소를 잘 씻어서 잔류농약을 제거하고 되도록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소비한다. 모기약 같은 살충제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 일회용품은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 용기는 되도록 유리 용기로 바꾼다. 특히 아기 우유병은 플라스틱 제품을 피하는 게 좋다. 레이철 카슨은 '침묵의 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류가 잉태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동안 위험한 화학물질과 접촉하게 되었다"고 했다. 결국 환경호르몬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

권호장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예방의학을 가르치면서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환경부와 질병관리청의 여러 위원회에도 참여하여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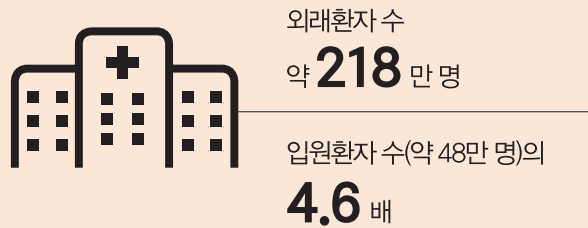
기온이 떨어지면 환자 수 올라가는 골절과 낙상

눈이나 비가 온 후 길이 살짝 얼고 두꺼운 옷을 입어 동작이 둔해지는 겨울철에는 골절과 낙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증한다. 통계에 따르면, 미끄러지고 걸리거나 헛디딤에 의해 낙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 골절은 두개골과 안면 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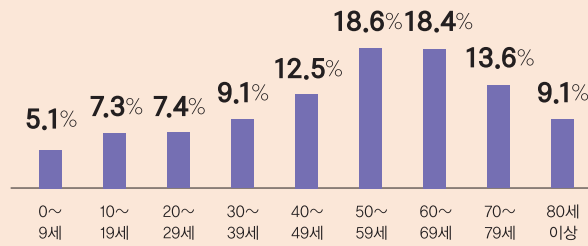
골절

2020년 전체 환자 수 **225만 3,600명** 1인당 내원일 수 **7.4일**(입원비율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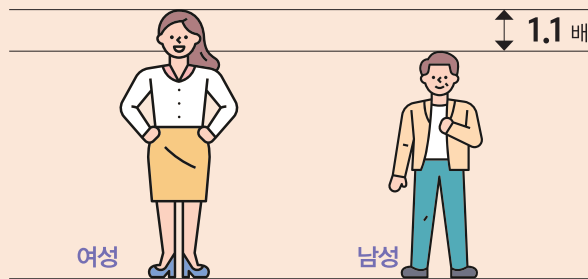
입원-외래별



연령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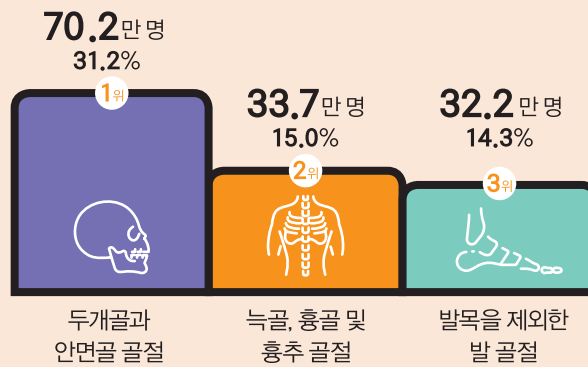


성별



여성 **115만 6,833명** 남성 **109만 6,76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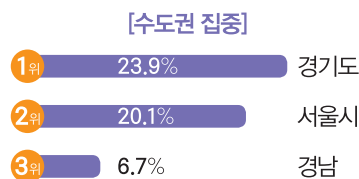
세부 상병별



월별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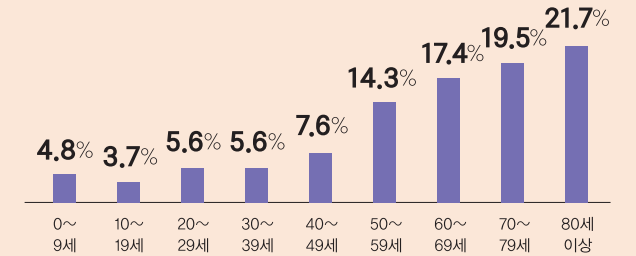
낙상

2020년, 전체 환자 수 **5만 1,766명** 1인당 내원일 수 **14.2일**(입원비율 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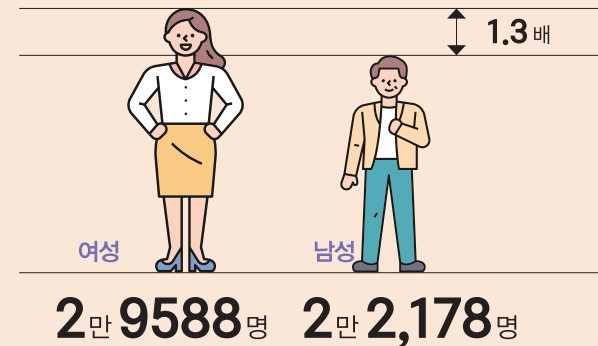
입원-외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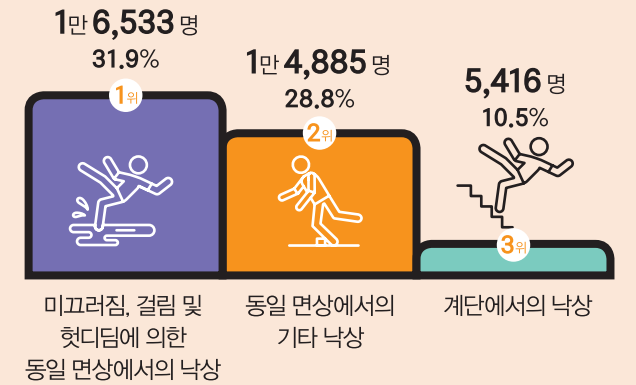
연령대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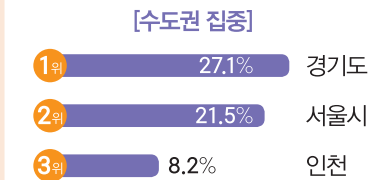
세부 상병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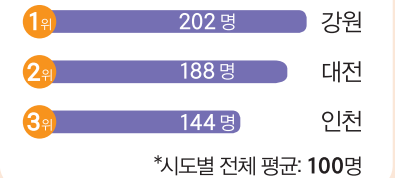
월별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



자료 분석 기준



건강보험 진료일 기준, 2016년 1월~2020년 12월(건강보험 2016년 1월~2021년 11월 심사결정분 반영)
골절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주상병을 기준으로 작성함
 - S02,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낙상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주상병·부상병을 기준으로 작성함
 - W00~W19
 ※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20), 약국 및 한방상병 제외
질병별 현황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진단명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호소, 증세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자료로 실제 최종 확정 진단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진료 시점 만(滿) 나이를 기준으로 연령 산출함
환자 수는 범주 내 동일인의 중복을 제거한 값이지만, 다른 범주와 단순 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예: 동일인이 연도 중 나이가 변경되어 진료받은 경우 각각 나이의 환자 수로 산출됨)

노인 환자 사망률 높은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4차)

폐렴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노령인구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며, 사망원인 3위에 올라있다.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노인환자의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서비스를 향상하여 질 높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대상



평가 기간

2019년 10월 1일~2020년 2월 22일*
*코로나19로 한시적 단축



대상기관

지역사회획득 폐렴* 입원 건이 1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중 발병하여 입원
48시간 이내 진단된 폐렴



대상환자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하여
정맥 내 항생제를 3일 이상 투여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

평가 기준

평가 지표

- 1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 2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 3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객담도말검사 처방률
- 4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 5 (혈액배양검사 시행 건 중)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 6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평가 대상 현황

전체 43,34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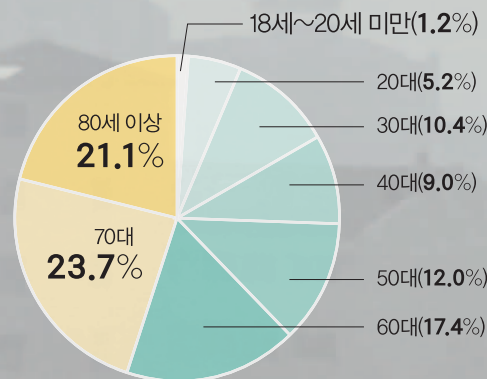
성별 현황

54.0%
2만 3,39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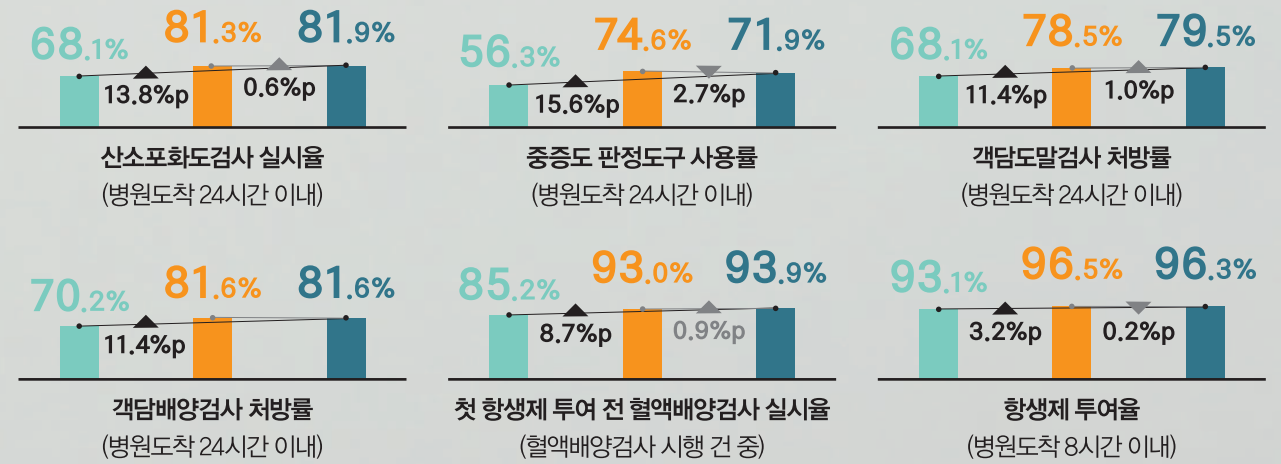


46.0%
1만 9,942명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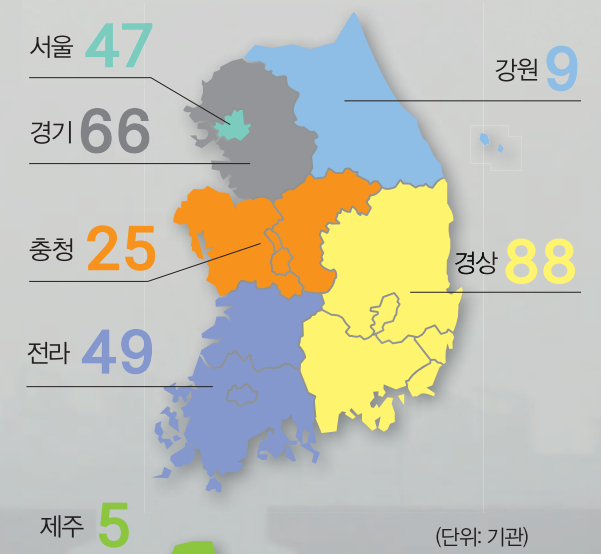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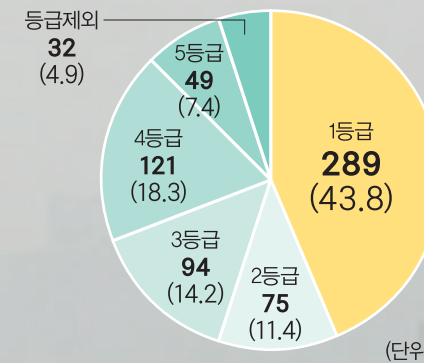
지표별 결과



종합 결과

1등급 289기관, 전국에 고루 분포

- 평가 결과는 지표별로 합산한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
- 4차 평가 결과 공개기관은 총 660기관이며, 평가대상 건수가 적어 종합점수를 산출하지 않은 기관은 '등급 제외'로 공개



* 기관별 상세한 평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급성질환 ▶ 폐렴
- 건강정보 모바일 앱 ▶ 병원평가정보 ▶ 급성질환 ▶ 폐렴

향후 계획

5차 평가 기간은 2021년 10월~2022년 3월(6개월)이며, 세부시행계획은 e-평가시스템 평가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평가시스템(http://aq.hira.or.kr) ▶ 알림방 ▶ 적정성평가 ▶ 평가알림방



대한민국 폐 이식수술의 개척자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백효채 교수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된다. 폐가 굳어 숨쉬기조차 힘든 이들에게 숨 쉬는 행복을 선사하는 이, 그가 바로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백효채 교수다. 국내 폐 이식 분야의 선구자로서 350례 넘는 이식수술을 도맡아온 그는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보다 환자와 가족으로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 숨쉬기가 편해 행복하다는 말을 들을 때 의사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담담하게 말한다.

국내 폐 이식 역사의 산증인

백효채 교수는 지난 1996년 7월,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최초로 시행한 폐 이식수술에 참여한 이래 오늘날까지 줄곧 이 분야에 매진해온 산증인이다. 첫 이식수술을 성공리에 마치고 2년간 미국으로 폐 이식 연수를 다녀온 이후 줄곧 수술에 참여했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폐 이식 집도의로서 수술을 전담해왔으니 그의 경력과 국내 폐 이식 역사가 궤를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세브란스병원에서 폐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가 경제적 여건으로 치료와 수술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폐 이식 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3,5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전 재산으로도 얻지 못하는 생명을 얻었으니 자신이 받은 것이 훨씬 더 크다는 말과 함께 그 환자가 백효채 교수에게 짧은 메시지로 진심을 전했다. '새 생명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외래를 보면서 가장 기분 좋은 날이 환자가 수술 후 다니던 직장에 복귀했다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숨을 쉬기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경과가 좋지 않았던 환자가 두 발로 건강하게 걷는 모습을 볼 때면

'저분이 살아서 나를 보러 오다니'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면서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그 순간만큼은 힘들었던 여러 과정에 대한 보상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고, 저 스스로에게 '제법'이라는 평가를 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식수술은 90% 이상 밤 9~10시에 시작해 환자가 중환자실에 나가는 시간은 보통 새벽 3~5시가 된다. 남들이 자는 시간에 많은 의료진의 노력이 필요한 수술을 시행하다 보니 결과가 좋으면 고생한 것은 다 잊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잃게 되는 경우에 느끼는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백효채 교수의 가족과 지인들은 아무리 중요한 모임이나 행사가 있어도 그가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그런 생활을 2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폐 이식의 새로운 인식 전환

폐는 다른 장기에 비해 이식 건수가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심지어 동료 의사들조차 '폐도 이식을 해?'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탓에 백효채 교수는 때를 놓쳐 소중한 생명을



백효채 교수는 지난 1996년 7월,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최초로 시행한 폐 이식수술에 참여한 이래 오늘날까지 줄곧 이 분야에 매진해온 산증인이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폐 이식 집도의로서 수술을 전담해왔으니 그의 경력과 국내 폐 이식 역사가 궤를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없는 안타까운 경우를 두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워한다.

폐 이식의 대상이 되는 질환은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폐섬유증, 폐동맥고혈압, 선천성심장병의 합병증으로 야기되는 아이젠멩거증후군이다. 그중에서도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 폐섬유증이 폐 이식수술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특발성폐섬유증은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질환으로, 진단 후 생존율이 3~5년 정도로 예후가 매우 불량합니다. 현재로서는 섬유화가 발생한 부분을 회복시키는 치료제가 없어서 폐 이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폐는 전적으로 뇌사자의 장기를 기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식 건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전체 뇌사자의 장기 중 폐장은 아주 빠르게 손상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야 20~25%에 불과해 제때 이식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폐 이식 수술은 조금이라도 빨리 폐 이식 등록을 하고, 대기 중에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백효채 교수는 너무 늦게 병원을 찾아와

더 악화된 상황에서 환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한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이식을 못 하게 되었을 때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터. 하지만 숨이 차서 단 1분도 더 못 살 것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고통이 더 힘들고 무서울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 폐 이식 의료진으로서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는 백효채 교수.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폐 이식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던 차에 2010년 EBS <명의> 프로그램의 ‘폐 이식’ 편 출연 제의를 받았고, 이 방송은 큰 방향을 일으켜 더 많은 환자에게 편안한 숨을 선물하는 기회가 되었다.

138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병원에서 가장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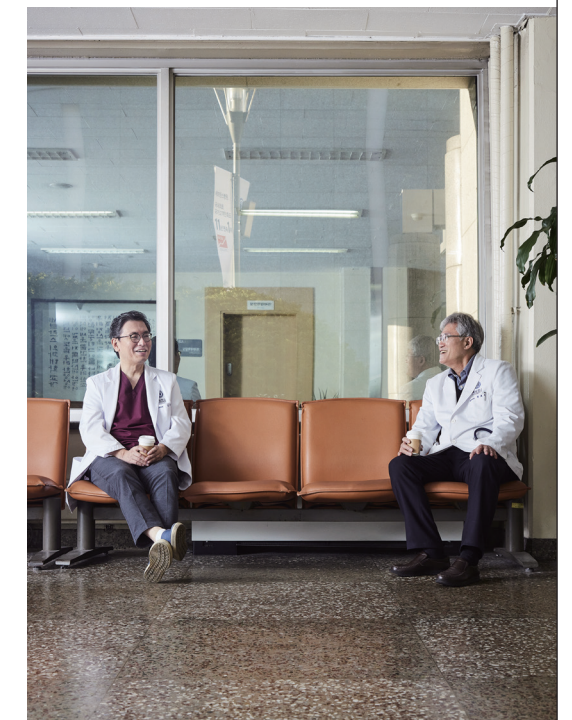
방송이 나간 후 백효채 교수로부터 폐 이식수술을 받고자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왔고, 대부분 아픈 사연들을 안고 실낱같은 희망을 엮고자 세브란스병원 폐 이식클리닉의 문을 두드렸다. 그중에는 고령 환자도 있었고, 30대 중반의 젊은 여성도 있었다.

“폐가 굳어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운 환자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잘 수도 없어서 체력이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수술을 견디려면 기초체력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많이 먹어라, 앉지 말고 걸어라, 운동해라’ 하며 무섭게 꾸짖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외래 보러 오는 환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살고 싶으면 걷고 움직이라고 해요.”

백효채 교수는 힘든 대수술임을 알면서도 본인은 물론 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폐 이식을 결정하는 환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들이라 말한다. 그 용기 어린 선택이 끝까지 잘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싫은 소리를 하고 악역 아닌 악역을 맡게 된다고 웃는다. 진심은 통하는 법, 처음에는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던 환자들도 점

차 백 교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먼저 산행모임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저희가 국내 폐 이식수술의 40% 정도를 집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의사로 일한 덕분입니다. 폐 이식에 관심이 많은 의료진과 다학제 폐 이식팀을 구성해 매주 회의를 거쳐 환자의 경과, 수술 전 환자 관리, 최상의 상태로 환자를 관리해 수술에 이르게 하는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왔고, 무엇보다 타 기관이 쉽게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술 경험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연구와 임상적 시도를 통해 국내에서 생소했던 폐 이식 분야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3회 바이엘임상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백효채 교수는 그 영광을 함께 고생한 폐 이식 클리닉팀과 가족들에게 돌리고 싶다 말한다. 아울러 138년 역사를 자랑하는 병원에서 가장 많은 건의 폐 이식수술 성공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폐 이식 수술의 기회가 너무 늦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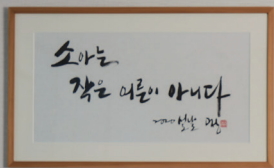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여는 튼튼한 수호천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서울 동북권 최초의 어린이병원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의료진 19명과 직원 120명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이다. 소아청소년과 중 유일하게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획득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 지정 제4주기 1차 연도 전문병원으로 선정되면서 국내 유일의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소아청소년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

소아청소년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급성기 질환이라는 점이다. 아이들은 잘 놀다가도 갑작스럽게 열이 나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보호자들은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사이에서 고민하게 마련이다. 종합병원에 가지니 긴 대기시간과 감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고충이 있고, 가까운 소아과에 가지니 다양한 의료 분과를 다루지 않아 진료체계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아이와 어른의 고민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체계가 구축된 어린이 전문병원이 필요하다.

2018년 개원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병원 내에서 검사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소아정신과, 소아내분비과, 소아심장과, 소아영상의학과, 소아치과 등 각 분야 전문의를 배치해 다양한 분과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협력을 맺은 병원에 신속히 진료의뢰를 할 수 있으며, 주변의 여러 1차 의료기관과 상급의료기관 진료협력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아픈 아이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회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

픈 아이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은 아이들을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에 원내에 비감염 존을 마련해 영유아검진 및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학생검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은 감염원에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은 개원 초기부터 중간·공간 분리를 해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관리하며 운영해왔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고 안심병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김민상 병원장은 진료적인 부분은 물론 아이들 건강관리의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것이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자부한다.

국내 유일의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이라는 의미

국내 의료체계의 고질병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 전문병원제도다. 이번에 4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101개 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전문병원으로 선정된 곳이 우리아이들이재단 산하 구로우리아이들병원과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로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은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양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구성과 진료량에서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하고, 필수 진료과목과 의료 인력, 병상수 등에서 엄격한 평가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또 의료질 평가기준을 통과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엄격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획득해야 하는 등 질적 요건도 갖춰야 한다.

“전문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병원 운영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의료기관 인증평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인 데다, 경험이 전혀 없었던 터라 처음에는 막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먼저 원내 각 운영위원회를 세분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준비해온 것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설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작업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와 당직 유무, 간호등급 등 구조적 기준과 질

환군별 입원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등 과정적 기준, 입원일수와 건당진료비, 내원일수 등 결과적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할 수 있었다.

김민상 병원장은 의료법인 우리아이들이재단의 아낌없는 지원과 실무진의 노력 덕분에 단기간에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며,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전문병원 지정이라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이라 말한다.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깝고 믿을 수 있는 병원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는 소아과학 교과서 첫머리에 적혀 있는 글귀로, 성인치료를 단순히 절반으로 줄여서 아이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전문병원은 성인과 다른 어린이의 연령과 체형, 심리 등을 고려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공급 시스템부터 정책,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이르기까지 소아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서 출발했다는 점에 자부심도 크지만 책임감 또한 막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문병원이라는 타이틀은 지정되는 것보다 유지하고 발전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진료적인 부분은 물론 보건의료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앞서가는 병원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전국 유일의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만큼 우리의 역할은 1차 의료기관과 상급의료기관을 유연하게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소아청소년과의 미래를 위



전문병원이라는 타이틀은 지정되는 것보다 유지하고 발전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진료적인 부분은 물론 보건의료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앞서가는 병원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해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개척하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의 기준이 되겠다는 목표로 앞서나가는 성북우리아이들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소아청소년에 맞는 재택치료 전담팀을 꾸려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메디컬 IT기업과 협업해 웹 기반의 재택치료 관리시스템을 독자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유일의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이라는 타이틀에 부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소아 환자와 보호자들이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깝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묵직한 무게로 다가온다. ✕



천식에 최적화된 약 흡입기

천식 환자들이 사용하는 흡입기는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작용을 줄이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천식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간혹 사용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점검해주어야 한다.



정희진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무균조제실을 담당하고 있는
약사. 병원약사의 생활을 담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병원약사회의
홍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약’이라고 하면 먹는 약이나 주사약이 떠오르지만 필요한 부위에 약을 직접 사용하는 형태도 있다. 약을 직접 흡입하는 ‘흡입기’가 그중 하나다. 흡입기는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가장 기본으로 쓰이는 약물 형태이다.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에는 염증 조절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스테로이드이다. 스테로이드는 먹거나 주사로 장기간 투여하면 고혈압, 당뇨, 골밀도 감소 등 여러 전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염증이 있는 기도에 가장 효과적으로 약효가 나타나게 하는 동시에 전신 부작용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약의 ‘흡입’이다.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는 흡입기

흡입기는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약효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 약을 흡입하는 과정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고, 하나의 기계를 한 달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흡입기 교육은 꼭 필요하다. 교육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라 놀랄 정도다. 특히 정량분무식 흡입기는 ‘누르면 가스가 나오는’ 특징이 구강청결제와 비슷해서 그런지 흡입기를 마치 구강청결제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칫칫 뿌려서 쓰는 경우를 보게 된다. 다양한 흡입기 중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온 제품이 바로 정량분무식 흡입기이다. 이 흡입기에는 손가락만 한 금속 가스통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 약물이 가스처럼 나온다. 가스통을 짧게 누르든 길게 누르든 상관없이 정해진 만큼만 약이 나오기 때문에 매번 일정한 양의 약물을 마실 수 있다. 정량분무식 흡입기는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흡입기를 누르는 동시에 약물이 나온다. 이 점이 어려운 부분이다. 흡입기를 누르는 동시에 약물을 들이마시기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흡입기를 누르는 순간부터 약물이 나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딱 맞춰 마시지 않으면 약물을 다 흡입하지 못하므로 동시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량분무식 흡입기를 사용할 때는 일정한 양의 약 가스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우선 흡입기를 몇 번 흔들여준다. 약을 흡입하고 나서 바로 숨을 참아야 하니 우선 후 하고 숨을 내쉰다. 그런 다음 흡입기의 입 대는 부분을 입술로 빈틈없이 감싸 물고, 흡입기를 누르는 동시에 나오는 약 가스를 마신다. 약 가스가

다소 오래 분출되니 5초 정도 깊이 들이마셔야 한다. 만약 정량분무식 흡입기를 누르는 동시에 마시기가 힘들거나, 목소리가 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 흡입기 입구에 끼우는 통인 스페이서를 사용할 수도 있다.

건조분말 흡입기도 있는데, 정량분무식 흡입기와 달리 조작을 해도 바로 약이 나오지 않는다. 조작한 후에 흡입하면 되기 때문에 정량분무식 흡입기보다 사용하기 편하다. 하지만 정량분무식은 누르면 약이 가스로 나오기 때문에 흡입력이 약해도 되는데, 건조분말 흡입기는 환자가 직접 흡입기 안의 약 가루를 들이마셔야 하기 때문에 흡입력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건조분말 흡입기는 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정량분무식처럼 사용 전에 흔들 필요는 없다. 흡입기에 따라 세부적인 사용법은 다르지만 뚜껑을 열거나 돌리면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번 흡입할 양이 흡입기 안에 준비된다. 그러면 후 하고 숨을 내쉬 후 흡입기의 입 대는 부분을 입술로 빈틈없이 감싸 물고 세계 들이마신다. 정량분무식처럼 몇 초간 깊게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빠르고 세계 들이마셔야 분말 형태의 약을 잘 흡입할 수 있다.

주기적인 사용 방법 점검은 필수

정량분무식과 건조분말 흡입기 모두 흡입 후 바로 숨을 내쉬면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약 가스나 분말을 마신 후 숨을 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충분히 흡입한 후에는 흡입기에서 입을 떼고 10초 정도 숨을 참고, 그대로 입을 닫은 채 코로 숨을 내쉬면 된다. 연속으로 두 번 흡입해야 하는 경우엔 연달아 흡입기를 두 번 쓰지 말고, 한 번 흡입하고 나서 1분 정도 선 후에 위의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만약 흡입기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다면 흡입 후에 물로 입을 헹구거나 양치를 하면 혹시나 입안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흡입기 사용 후에는 흡입기의 입 대는 부분에 묻은 침을 마른 휴지로 닦아줘야 한다.

흡입기는 장기간 써도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으로 호흡기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형태의 약이니 거부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 또 흡입기마다 세부적인 사용 방법이 다르니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며 주기적으로 사용법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

진정한 쉼을 알게 해주는 곳 영월

겨울의 영월은 또 다른 모습을 간직한 채 사람들을 맞이한다. 청정 지역으로 불리는 만큼 언택트 시대에 걸맞은 여행지로 떠오르기도 했다. 감탄사가 나오는 풍경도 여럿 있다. 번잡한 도시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영월로 떠나보자.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영월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낮선 풍경이 주는 신선함

영월의 대표 명소를 꼽으라면 한반도지형이다. 산등성이를 따라 굽이굽이 펼쳐진 석회암지대의 암석이 물에 녹아 만들어진 카르스트지형인 이곳은 평창강이 산 꼬트머리를 에워싼 모습이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한반도 같아서 붙여진 명칭이다. 주차장에서 15분가량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문득 나타나는 낮선 풍경이 압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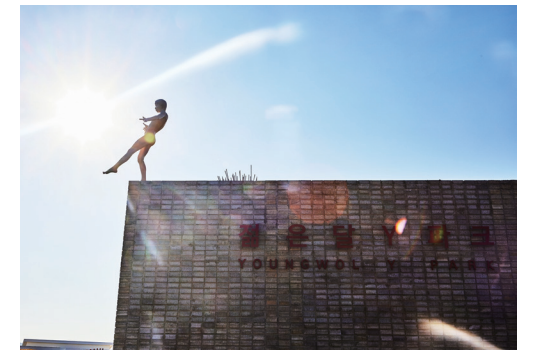
자연이 주는 안락한 아름다움

영월읍 방절리 서강 강변에 있는 높이 약 70m의 기암인 선돌도 영월을 대표하는 명소다. 큰 칼로 절벽을 쪼갠 듯한 형상으로 푸른 강물과 층암절벽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낸다. 강으로 둘러싸인 쇠다리 마을에도 이색 볼거리가 있다. 나무와 솔가지, 흙을 이용해 만든 쇠다리는 해마다 늦가을에 마을 사람들이 통나무를 엮어 다리를 놓고, 여름 홍수에 떠내려가면 다시 만들곤 했다. 영월 주천면에 들르면 쇠다리 풍경도 놓칠 수 없다.



자연환경에 작품을 더한 공간

주천강과 나지막한 대래산이 뻗은 곳에 있는 젊은달와이파크는 2019년 탄생한 복합예술공간이다. 주변의 녹색과 가장 대비되는 강렬한 빨간색 금속 파이프로 만든 설치작품이 방문객을 반기는 이곳은 영월의 자연 풍경과 묘하게 어울리며 영월의 명소로 떠올랐다. 현대미술 작품 전시와 공방, 카페, 아트숍 등이 어우러져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드는 DUR 관리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심평원의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이 큰 주목을 받았다. 실시간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안정성 정보를 전달하는 특성을 활용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한 해외 입국자 정보를 제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한 덕분이다. 이 모든 것은 DUR 관리실이 있기에 가능했다.



이용률 99.9%의 DUR 시스템

2015년 메르스, 2016년 지카바이러스에 이어 2017년 에볼라와 라사열,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까지. 전 세계를 흔든 감염병이자 DUR 시스템을 활용해 심평원과 질병관리청의 공조가 이뤄진 일들이다.

DUR 관리실은 DUR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DUR 관리부와 DUR 정보부로 나뉘어져 있다. 전체 인원은 34명으로 타실에 비해 적지만, 의약품 안전정보 DUR 적용 및 대상 의약품 관리를 담당하는 심사직, DUR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을 담당하는 전산직, DUR 관련 법령 및 지침 제정과 개정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DUR 관련 고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직까지 다양한 직종이 모여 DUR 시스템을 활용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DUR 시스템은 2003년 콧물감기약과 무좀약을 함께 복용한 30대 여성이 사망한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의약품 부작용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에 항히스타민제와 항진균제를 같이 복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의약품 부작용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생겼고, 2008년 개발에 착수해 2010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약 8만 개소에 달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DUR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병용금지·연령금

기·임부금지 및 노인주의의약품 등 총 13개 유형, 약 6만 3,000개 품목의 의약품 안전성 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한다.

실시간 정보교류가 가능한 DUR 시스템의 활용 영역을 확장해 메르스 이후 여러 감염병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2020년 3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DUR·ITS 사용 의무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0년 1월에는 DUR·ITS를 통한 감염병 발생지역 체류·방문자의 요양기관 정보이용률은 54.1%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 세계적 인 비상 상황에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해 심평원과 정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협조한 끝에 2021년 12월 말 기준 99.9%까지 향상되었다.

무궁무진한 DUR 시스템 활용법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업무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위상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보건의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심평원이 보유한 보건의료자원관리시스템, DUR·ITS 시스템, 빅데이터시스템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보건의료 인프라와 ICT시스템을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DUR 관리실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DUR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외여행력정보 제공, 역학조사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021년 5월 이후에는 이상반응 모니터링 지원을 위해 백신 접종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긴급사용승인됨에 따라 원활한 치료제 공급을 위해 공급기관별 입고량, 출고량, 통계관리 등 현황 관리가 가능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재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DUR 기반의 개인별 약물알레르기 등 부작용 정보 추적 관리체계 구축, DUR 점검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 의약품 투약 이력과 알레르기·부작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 디지털 중심의 DUR 혁신 성장을 준비 중이다.

사우에 넘치는 분위기

돈독한 분위기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DUR 관리실의 또 다른 자랑이다. 타실에 비해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화목할 수밖에 없다. 새해부터 DUR 관리실에 합류한 김옥봉 실장도 짧은 시간을 함께했지만 분위기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말한다.

“사실 업무는 많고 인원은 적기 때문에 우리 구성원들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국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한다는 자부심으로 힘든 내색 없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줘 항상 고맙고 자랑스러울 따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하는 시간이 줄면서 소통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매 분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업무에 지친 직원들이 잠시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극성이던 지난해 8월 입사한 하대성 주임도 코로나19로 인한 사적 모임 자제로 인해 아쉬웠지만, 사내 메신저나 전화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다양한 활동 덕분에 수월하게 DUR 관리실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DUR 시스템의 확장으로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DUR 관리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DUR 관리실의 노력이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다. X

mini interview



**DUR 시스템의
향후 10년을 그리는 원년이 되도록
김옥봉 실장**

“저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함께 고민합니다.”

제가 우리 실 구성원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치료제와 관련해 복지부·식약처·질병청 등 범정부 차원의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DUR 시스템 역량 확장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심평원에서 34년간 근무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에 실무자의 능력이 더해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DUR 시스템이 상용화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DUR 시스템을 보완하여 업그레이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바로 그 시작이 되도록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연구해서 더 나은 DUR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은 가족공예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부푼 마음으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곤 한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 어떻게 여가를 활용할지 고민이 많은 요즘, 나만의 취미 만들기 계획을 세우는 건 어떨까? 정책연구실 상대가치개발부 한진희 과장과 김지원 대리가 올해 '취미 부자' 첫 주자로 나섰다.



김지원 대리

"취미 부자에 참여하게 돼 설레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는데 기우였어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가죽 제품이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는 걸 알았으니 앞으로는 더 소중히 다룰 것 같아요!"

짧지만 깊은 인연

따스한 햇살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1월 중순, 한진희 과장과 김지원 대리가 '취미 부자'의 시작을 함께했다. 다양한 가족과 실, 가죽제품이 가득한 공방에 도착한 한진희 과장과 김지원 대리는 눈을 떼지 못했다. 라탄공예, 케이크, 마카롱 등 여러 원데이 클래스에 자주 참여했던 두 사람이지만 가죽공예는 처음이었다.

"가죽공예 경험은 없지만 대학 시절 친구가 제 이니셜을 새긴 가죽 지갑을 선물해준 적이 있어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김지원 대리는 평소 해보고 싶었던 가죽공예를 평소 대화를 자주 나누고 잘 챙겨주는 한진희 과장과 함께 <건가사> '취미 부자'를 통해 체험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들뜬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한다는 한진희 과장도 일과 육아로 바쁜 일상 속에서 취미를 갖는 것이 사치라는 생각이 들어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친한 김지원 대리의 제안으로 '취미 부자'에 지원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년 전 김지원 대리가 입사하면서 시작됐다. 2020년 1월, 첫 부서 발령으로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질 때 한진희 과장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한다. 함께 운동을 하며 정보도 공유하고 대화를 자주 나누며 더욱 친해졌다.

"평소에 젊은 직원들을 대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지원 대리는 입사 후 업무에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스스로없이 먼저 다가와줬어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또 현재진행형이지만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더욱 친해졌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나만의 가죽제품

사람과 사람의 관계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것들이 있다. 사용자에게 맞게 손이 탄 가죽제품도 그렇다. 가죽이 손에 익으며 생긴 특유의 자연스러운 에이징과 사용감이 묻어나는 흠집은 가죽제품만의 매력이다. 두 사람은 앞으로 함께 세월을 겪을 가죽제품을 만들기로 했다. 한진희 과장은 카드 지갑을, 김지원 대리는 필통을 선택했다.

작은 가죽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죽 색상부터 실 색상, 이니셜을 각인할 위치, 바느질, 똑딱이 모양까지 만드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가죽공예를 할 때 수많은 과정 중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본드를 두껍게 바르는 것이다. 본드를 두껍게 바르면 두 가죽 사이에 틈이 생겨 제품이 금방 망가질 수 있어 얇고 균일하게 바르는 것이 관건이다. 본드 바르기 과정을 시작하자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특히 한진희 과장이 선택한 카드 지갑은 작은 조각이 여러 개라 더욱 애를 먹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손에 익는지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더 정교해졌다. 가죽공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꼼꼼함도 손재주도 아닌 인내심이다. 보통 원데이 클래스는 길어야 2~3시간이 걸리는데, 가죽공예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재단된 가죽을 손질하고 한 땀 한 땀 직접 바느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 시간만큼 정성이 제품에 담긴다. 제품의 완성도와 들인 정성이 비례하니 만드는 사람은 뿌듯하고, 받는 사람은 감동받을 수밖에 없다. 완성품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묻자 김지원 대리는 첫 완성품인 만큼 직접 사용하고, 한진희 과장은 선물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지갑을 완성하면 친언니에게 선물할 생각이예요. 얼마 전에 복직했는데 명함을 넣어 다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응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선물하고 싶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한진희 과장과 김지원 대리. 가죽이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며 깊은 멋을 내듯 두 사람의 소중한 인연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길 바라본다. X

한진희 과장

“가죽공예 원데이 클래스를 들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만들면서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완성품을 보니 뿌듯합니다. 잠시나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바느질을 하며 마음의 안정도 찾는 힐링 시간이었어요~”



네모에그크래프트
 가죽공예를 통해 물건의 소유를 넘어 나만의 것으로 확장하는 경험, 몰입의 즐거움을 전하는 가죽공예 아틀리에입니다.
 ▲ 강원 원주시 백간공원길 21-8 B1
 ☎ 010-9199-8088
 @nemo_egg_craft



당신은 그린슈머인가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변화는 더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후 무자비하게 쌓이는 쓰레기를 목격하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이에 사람들은 자신이 무심코 소비하는 물건이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고 있다.



행동하는 소비자와 반응하는 기업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착한 소비를 지향한다면 당신도 '그린슈머'다. 그린슈머란 자연을 뜻하는 그린(Green)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자연을 생각하며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 생산·유통 과정에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지, 지속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기업이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지 등을 면밀히 고려한다.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 기업과 브랜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비하는 것이 필(必)환경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이다.

보통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가격이다. 지난 몇 년간 '가격 대비 성능'의 준말인 '가성비'가 소비 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도 변화가 감지됐다. 가성비에 집중하던 소비자들이 자신의 가치판단을 토대로 제품을 선택하는 '가치소비'에 눈뜨기 시작한 것이다. 이 흐름과 그린슈머가 만나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친환경제품을 소비하고 기업에 친환경 정책을 요구하는 등 행동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는 저절로 생기지 않으며 기업 역시 먼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린슈머들은 친환경제품 구입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기업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며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2020년 2월, 매일유업은 상대로 소비자들의 '빨대 어택'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일회용 빨대 사용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제품에 붙어 있는 빨대를 모아 매일유업에 전달했고 매일유업의 대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당시 매일유업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현재 빨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음용하기 편리한 구조의 포장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개발과 함께 빨대 제공에 대한 합리적인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며 자필 편지로 답했다. 매일유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해 6월부터 요구르트 '엔요 100'에서 빨대를 없앴고 이로 인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44톤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매일유업은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며 일부 다른 제품에서

도 빨대를 없앴다. 이는 소비자의 친환경 정책 요구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손꼽힌다. 이 외에도 CJ제일제당은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통조림 햄 '스팸'의 노란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했다. 동원F&B도 플라스틱 용기를 뺀 '양반김 에코패키지'를 출시했는데, 출시 1년 만에 500만 봉 넘게 판매되며 플라스틱 27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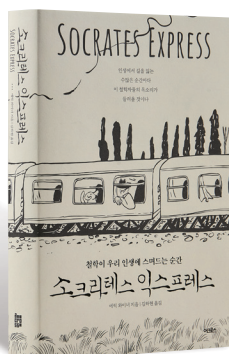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착한 소비

그린슈머라고 해서 거창한 행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용기 내 챌린지'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음식 포장으로 생기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로 시작된 환경운동이다. 용기(勇氣) 내서 용기(容器)를 내밀자는 뜻으로, 일회용품 대신 다회 용기에 음식을 포장하는 것이다.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도 용기 내 챌린지의 일환이다. 2018년 시작된 플라스틱 컵 사용 전면 규제에 이어 올해 6월 10일부터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 대해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고, 추후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회용 컵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많은 커피전문점이 개인 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새 제품을 구매하면 생기는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고 싶다면 '리필 스테이션'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국내 대표 뷰티 기업들도 자사 대표 제품을 포장 용기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필요한 제품을 원하는 만큼만 소분해 구입할 수 있어 물건 구매로 생기는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누군가는 유난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환경문제는 이제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그린슈머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구와 인류의 공존을 위해 우리 모두 환경보호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다. ✕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프랑스 사상가 모리스 리즐링은 말한다. “결국 인생은 우리 모두를 철학자로 만든다.” 하지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우리는 수시로 깨닫는다. 여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철학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삶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받는 것은 어떨까?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부터 몽테뉴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을 만나러 떠나는 여행기이자, 그들의 삶과 작품 속의 지혜가 우리 인생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답을 찾아가는 책이다. “우리에게 늘 지혜가 필요하지만 삶의 단계마다 필요한 지혜가 다르다. 열다섯 살에게 중요한 ‘어떻게’ 질문과 서른다섯 살, 또는 일흔다섯 살에게 중요한 질문은 같지 않다. 철학은 각 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 에릭 와이너 Eric Weiner.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가다. 무엇보다 철학적 여행가다. 저서로 베스트셀러 『행복의 지도』와 『신을 찾아 떠난 여행』 등이 있다. 두 책은 스무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옮김 김하현 출판사 아크로스 출간 2021년 4월 28일



『트렌드 코리아 2022』

‘또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읽어둘 가치가 있다. 현재의 트렌드는 물론 가까운 미래도 읽을 수 있다. 『트렌드 코리아 2022』는 극도로 세분화되고 파편화된 ‘나노사회’로 시작된다. 또 가족과 공동체가 파편화된 세상에서 오롯이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돈을 좇고 (머니러시) 부를 과시하는 ‘특템’에 올인한다. 누구는 러스틱 라이프를 즐기며 시골스러움에서 위안을 얻고, 바른생활 루틴으로 살면서 소소한 자신감과 미세 행복을 찾는다. X세대의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를 따라 부르며 직장의 젊은 꼰대 상사를 떠올려본다. 친구의 SNS에서 본 밀키트와 화장품이 좋아 보여 그냥 구매하고 재택근무를 할 때도 출근시간에 맞춰 알람을 설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지금의 한국 사회를 이야기한다.

저자 김난도 교수, 트렌드 연구자, 컨설턴트, 작가, 유튜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비트렌드분석센터장으로 일하며, 유튜브 채널 ‘트렌드코리아TV’를 진행하고 있다. 출판사 미래의창 출간 2021년 10월 6일



『불편한 편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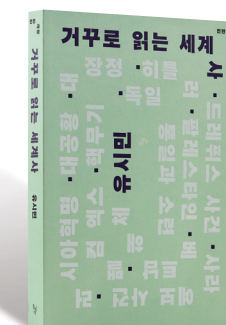
서울역 노숙인 ‘독고’가 70대 여성의 지갑을 주워준 인연으로 그녀가 운영하는 편의점 야간 알바로 일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큰 덩치에 알코올성 치매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말도 어눌한 ‘독고’가 편의점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하지만 의외로 일을 잘하고 주변 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으며 편의점의 밤을 지킨다. 현실감 넘치는 캐릭터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점입가경으로 형상화하는 데 탁월한 작가의 작품으로, 이 소설에서도 독특한 개성과 사연을 지닌 인물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별난 관계를 형성해간다. 일상적 현실을 위트 있게 그린 경쾌한 작품과 인간의 내밀한 욕망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풀어낸 스릴러 장르를 오가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만들고 있는 작가 김호연의 다섯 번째 장편소설이다.

저자 김호연. 영화·만화·소설을 넘나들며 온갖 이야기를 써 나가는 전천후 스토리텔러. ‘젊은 날 닥치는 대로 글쓰기’를 실천하던 중 장편소설 『망원동 브라더스』로 2013년 제9회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소설가가 되었다. 출판사 나무옆의자 출간 2021년 4월 20일

『거꾸로 읽는 세계사』

『거꾸로 읽는 세계사』 독자 리뷰 중에는 세계사 공부의 길잡이 역할을 해줬다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애초에 한국사회를 바로 보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공부했고, 그것을 나누고 싶어 쓴 책이기에 지식을 전달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유시민이 가려 뽑은 20세기의 결정적 장면으로 채워져 있다. 20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사라지는 것도 새로 생겨나는 것도 부지기수였다. 전 세계의 판도를 바꾼 세계전쟁이 두 차례나 일어나는 가운데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인 불세비키혁명, 가장 중대한 ‘기술적 사건’인 핵폭탄 개발이, 가장 큰 ‘혁명적 사건’인 디지털 컴퓨터의 발명이 20세기를 지배했다(375쪽). 그리고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여전히 그 사건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저자 유시민. 대학과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공직에 몸담은 적이 있으나 현재는 글을 읽고 쓰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역사, 경제, 글쓰기 등에 대한 책을 썼다. 출판사 돌베개 출간 2021년 10월 29일

ONE PICK!
베스트셀러 책 네 권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될 때는 베스트셀러 코너를 살펴보자. 새해를 맞아 독서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권한다. 많은 사람이 선택해 읽고 있는 책 네 권을 소개한다.



HIRA NEWS



'제3회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우수한 평가로 3년 연속 인정패 수상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제3회 2021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지역사회공헌 인정패를 수여받았다. 특히 개별 지원의 사회공헌 활동 역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본원과 10개 지원이 지역사회공헌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원주여성커뮤니티센터에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 300권 기증

임직원이 기증한 아동·청소년 도서 300권을 지난해 12월 28일 '원주여성커뮤니티센터'에 전달했다. 2019년부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도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는 '원주여성커뮤니티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내 여성과 아동의 독서문화 환경 마련 및 도서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기증된 도서가 활용된다.



원주 다문화가정 협력 간담회를 통한 상호 지식 공유

심사평가원과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15일 다문화가정 협력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소속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및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소개, 이주 여성 본국 의료경험, 현지 문화, 비즈니스 매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지식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사평가원, 2021 데이터인의 밤 행사에서 데이터 품질 대상 6년 연속 수상

지난해 12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21 데이터인의 밤' 행사에서 '데이터 품질대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장상을 수상했다. 보건 의료 빅데이터분석DB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품질인증 최고 등급인 'Platinum'을 6년 연속 유지하게 됐으며, 보유한 보건 의료 데이터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산업진흥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2021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동상

지난해 12월 16일 인사혁신처 주관 '2021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받았다. 'HIRA 학습생태계'는 MZ세대 직원의 육성을 목표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업무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도록 돕는 인적자원개발로, 혁신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생태환경교육·실천 프로젝트' 동참으로 지역사회 나눔 실천

지난해 12월 21일 본원에서 강원도교육청,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SK(주)C&C 등 8개 지역 교육 및 시민단체 등과 '2021 행동하는 생태환경교육 실천·나눔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선정된 시범학교 학생들의 실천활동(잔반제로, 페트라떼, 플라스틱 프리, 몸짱, 환경캠페인, 캔크러쉬)을 포인트로 적립 및 환산하여 임직원 성금 4,612천원을 강원대학교병원에 환경성질환 환우 치료비로 기부하였다.



의료기기산업협회와 소통 간담회를 통한 상생 발전 방안 논의

1월 7일 서울 서초동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기기 산업의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기산업계의 고민을 청취하고, 의료기기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 및 상생 발전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화재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를 위한 신형 소화용구 설치 지원

1월 13일 원주 전통시장에서 '화재 없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원주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원주시 소재 전통시장을 방문해, 노후 상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기구에 붙이는 신형 소화용구인 자동소화패치 1,500개 설치를 지원하였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22 01 + 02

‘HIRA 빅데이터’ 추운 겨울 반드시 알아야 할 뇌졸중과 ‘위로의 약방’ 한방약재 기사가 유익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찬 바람이 불면 뇌졸중 걱정이 앞섭니다. 아버지께서 온도가 낮은 곳에 계시다 더운 곳으로 들어오신 후에 쓰러진 적이 있어서 늘 걱정입니다. 혈관 건강에 좋다고 소개된 계피, 방풍, 단삼, 당귀 등으로 울거울을 건강하게 보내야겠습니다. **강선미** 광주 북구

코끝까지 전해지는 달콤함, 베이킹 클래스 이야기를 재밌게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장님 두 분의 베이킹 체험을 보며 소소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도시는 변해도 마음은 늘 같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직에 적응하기 힘들어 고민이 많을 때, 누군가 먼저 손 내밀어준다는 건 마음 따뜻해지는 일이죠. 저도 주위를 둘러보고 나누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두 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송동이** 경남 거제시

얼마 전 배우자가 운전 중 접촉사고를 당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심평원에 자동차보험심사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괜히 반가웠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모두가 적절한 치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직원분들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손준호 대구 달성군

독자엽서 당첨자

강선미 광주 북구	곽경애 부산 북구	김동석 서울 동대문구	김지원 서울 종로구
김지윤 경남 양산시	민수홍 충북 옥천군	박명애 경기 광명시	박수빈 경남 통영시
백한아 대구 달성군	서보람 강원 원주시	설경진 광주 남구	손준호 대구 달성군
송동이 경남 거제시	안준형 경기 고양시	오무영 전북 전주시	이강희 서울 노원구
이미형 강원 원주시	전예빈 경기 의정부시	조영민 경기 의정부시	최선영 서울 성동구

구독 신청·취소, 주소변경

- 1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hirasabo.or.kr로 접속
- 2 하단의 구독 신청/변경 배너를 클릭
- 3 서식 작성 후 제출하기 클릭으로 완료

구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필수). 발송물이 반송되는 경우 해당 구독 신청 건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나누는 건강 당첨자

박지혜(0254) **엄공훈**(6313) **정승은**(0589) **최원종**(9038) **이선민**(5283) **권혜영**(5311)
김윤수(8210) **김어지나**(5424)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22 January + February

Vol. **186**

- 1 2022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 2 요양기관 차등제 신고방법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
- 3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안내

의약계 안내사항
BOOK IN BOOK

2022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문의: 평가운영실 평가운영부 윤미선 팀장
033-739-3510

한눈에 보는 2022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2022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주요 내용

2022년에는 총 41항목(본평가 37항목, 예비평가 4항목)의 평가를 시행합니다.

신규평가 영상검사, 입원일수

예비평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의료 관련 감염, 류마티스관절염, 신경차단술

총계	본평가			예비평가
	소계	신규항목	계속평가	소계
41	37	2	35	4

중점 추진 방향

- 환자안전 및 진료 성과 등 국민 체감형 평가 혁신
- 자료수집체계 개편 및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 가치 기반 보상 강화 및 국민·의료계 소통 확대

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 및 진료 성과에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신규평가 '영상검사' 평가를 실시해 의료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안전관리 및 '입원일수' 평가로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평가 지표 개발 국민 평가 제안으로 발굴된 '전립선암'과 평가 사각지대 진단으로 자체 발굴한 '환자안전영역' 등의 평가 지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진료 성과 및 환자안전 중심의 결과 지표로 개선하고 개발합니다.

- **(중환자실)** 사망률 중증도 보정 및 감염 등 진료 성과 중심으로 지표를 개편하여 시행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암 평가)** 수술 중심에서 암 진료영역 전반을 평가하고, 치료성과 및 환자 중심 지표로 개선합니다. 올해는 대장암, 위암, 폐암 평가를 우선 수행할 계획입니다.
- **(결핵)** 국가 단위에서 기관 단위 평가 결과 공개 및 초기 진단검사 지표를 기존 3개에서 1개로 개선합니다.
- 모니터링으로 시행 중이던 결과 지표를 평가 지표로 전환하고, 진료 성과와 연관성 정도에 따라 구조 및 과정 지표는 정비해 나아갑니다.
- 병원급 이하 종별에서 평가대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결과 지표 자료를 제출하는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및 자료 제출에 따른 보상(P4R) 연계 도입을 검토합니다.
- 이 밖에, 요양병원 평가는 안전 지표와 함께 지역사회 연계 지표를 강화하고, 약제 급여 평가는 노인의 약물 안전 지표 신설을 추진합니다.

평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가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 **(목표 설정)** 보건의료체계 내 평가영역별 문제 해결을 위한 평가 설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항목별·지표별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 **(단계별 접근)** 목표 설정 이후, 1단계로 일반 지표와 목표 도달 지표는 일제 정비를 시행하고, 2단계는 핵심 지표를 대상으로 3차수마다 주기적으로 재평가합니다.

② 평가 자료수집체계를 개편하고 평가정보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의미 있는 평가 수행 및 결과 도출을 위해 자료수집체계를 개편합니다.

-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e-Form)의 표준서식을 활용한 제출 기관 수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홍보 강화 및 소통 채널 등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 환자안전 지표 측정에 중요한 정보인 '입원 시 상병(POA)'의 정확한 수집을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하고, POA 코딩 준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 활용성과 편의성을 높인 '평가정보 통합포털 웹'을 구축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요양기관과 국민을 위한 정보 제공 등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입니다.

③ 가치 기반(Value-based) 보상 강화 및 국민·의료계와 소통을 확대합니다.

가감지급제도를 병의원급 중심으로 확대 추진하며 타 가산 제도에 평가결과 활용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의료 질 취약기관을 분석해 질 향상 활동 밀착관리 및 현장 중심의 질 향상 지원을 강화합니다. 국민이 평가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 시각화 및 쉬운 용어 등을 사용하여 홈페이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국민 관점의 의료서비스 평가 강화를 위해 '국민평가패널'을 운영합니다.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심사평가원 업무),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2022년 영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구분(총 37항목)		평가 항목(54개 세부항목)
신규 (2)	진료행위 및 약제(1)	① 영상검사
	기관 단위(1)	② 입원일수
계속 (35)	환자 중심(1)	① 환자 경험
	급성질환(5)	② 관상동맥우회술, ③ 급성기 뇌졸중, ④ 폐렴, ⑤~⑥ 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주1}
	만성질환(4)	⑦ 고혈압, ⑧ 당뇨병, ⑨ 천식, ⑩ 만성폐쇄성폐질환
	암질환(5)	⑪ 대장암, ⑫ 유방암, ⑬ 폐암, ⑭ 위암, ⑮ 간암 진료결과
	감염질환(1)	⑯ 결핵
	정신건강(4)	⑰ 의료급여 정신과, ⑱ 정신 건강 입원영역, ⑲ 우울증 외래, ⑳ 치매
	진료행위 및 약제(9)	㉑~㉔ 약제 급여(급성 상·하기도감염 항생제, 주사제, 약품 목수, 투약 일당 약품비), ㉕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18개 수술) ^{주2} , ㉖ 혈액투석, ㉗ 마취, ㉘ 치과 근관치료, ㉙ 수혈
기관 단위(6)	㉚ 영양병원, ㉛ 중환자실, ㉜ 신생아중환자실, ㉝ 병원표준화사랑비, ㉞ 위험도 표준화재입원비, ㉟ 중소병원	
예비	예비평가 ^{주3}	신경차단술, 류마티스관절염, ADHD, 의료 관련 감염

주 1) 향후 평가 방향 협의 중

주 2) 18개 수술(대장수술, 담낭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개두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전립선절제술,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 후두수술, 허니아수술, 폐절제술, 골절수술, 혈관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주 3) 인력·예산 등 평가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행 예정이며,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항목 변경 가능

영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전반적 이해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의약학적 및 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를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환자 경험, 치매 평가 등 평가 영역을 고르게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에 따라 매년 말에 다음 해 추진할 신규 평가 항목, 항목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 작성 후에는 매년 말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와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친 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국가 의료 질 향상 목표 (6개 영역 18개 목표)

영역	목표
환자안전(Safety) 합병증/부작용 발생 예방, 그로 인한 피해 최소화	1.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 감소
	2. 의료 관련 감염 발생 감소
	3. 의료 관련 감염 이외의 영역에서 환자안전 사고의 감소
	4.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안전 향상
효과적인 진료(Effectiveness) 근거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5. 주요 입원 질환에서의 근거 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6. 일차 진료에서의 근거 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7. 주요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감소
	8. 모성 및 신생아·아동의 건강 향상을 위한 근거 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9. 노인 건강 향상을 위한 근거 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10.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한 근거 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환자 중심성(Patient-centeredness) 환자 경험과 환자의 의료서비스 조정 능력 향상	11.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경험, 만족도 향상
	12. 환자의 자기 관리능력 향상
건강보험의 효율성(Efficiency) Low-Value Service의 적절한 이용과 모든 질환/주요 질환 치료 전 과정의 효율성 제고	13. 의료이용의 적절성 향상
	14. 의료자원 소모량의 평가를 통한 효율성 향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 연계 강화 (Healthcare delivery system) 의료기관 유형별 기능 수행을 통한 의료서비스 연계 강화	15. 중증질환에 대한 입원 중심의 진료
	16. 의료기관 간 협진체계 구축
의료이용의 형평성(Equity) 접근성 향상, 기관·지역 간 의료서비스 질적 차이 해소	17. 취약계층 의료이용의 접근성과 질 보장
	18. 필수의료(응급)의 접근성과 질 보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가 의료 질 향상 목표(6개 영역 18개 목표)'를 기반으로 평가 영역을 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적정성 평가에서는 해당 영역 중 그간 미흡했다고 판단한 '환자안전'과 '환자 중심성' 영역을 확대를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요양기관 차등제 신고방법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

문의: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최병성 팀장
033-739-4880

개요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관련 기준과 신고방법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 신고담당자가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등제란?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또는 병상) 대비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제 운영항목별 기관의 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등급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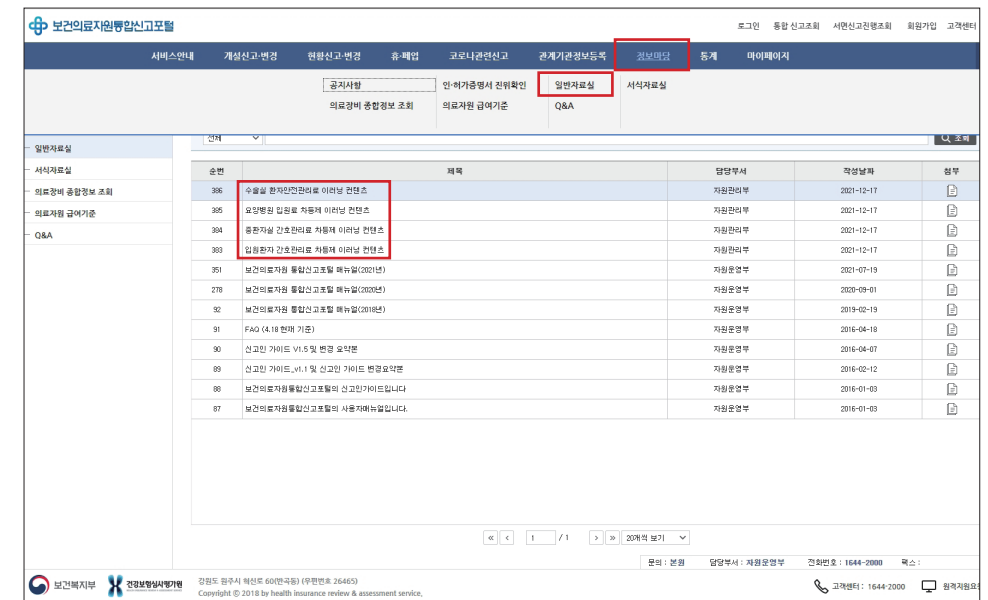
교육내용

과정당 약 10~15분 소요

차등제 항목	교육내용	관련수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요 - 통보서 제출, 신규개설 및 양도양수기관 등급산정 등 2. 차등제 신고방법 및 산정기준 - 병상수·간호사수·환자수 등 신고방법 -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적용 기준 등	기본진료료 가-2 입원료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가-28-1 야간간호료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요 - 개요, 통보서 제출, 신규개설기관의 등급산정 등 2. 차등제 신고방법 및 산정기준 - 병상수·간호사수 등 신고방법 - 전담의 가산, 전담(전문)의 가산 적용 기준 등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1.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요 - 통보서 제출, 신규개설 및 양도양수기관 등급산정 등 2.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방법 및 산정기준 - 환자수·간호인력·의사인력 신고방법 - 필요인력 가산 적용기준 및 신고방법 등	요-51 요양병원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	1.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개요 - 개요, 통보서제출, 신규개설기관의 등급산정 2.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신고방법 및 산정기준 - 병상수·간호사수 신고방법 - 수술실 시설 구비 및 적용 기준 등	기본진료료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이러닝 이용방법

이러닝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정보마당 > 일반자료실에 접속해 항목별로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영상은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관리부(033-739-4873)로 문의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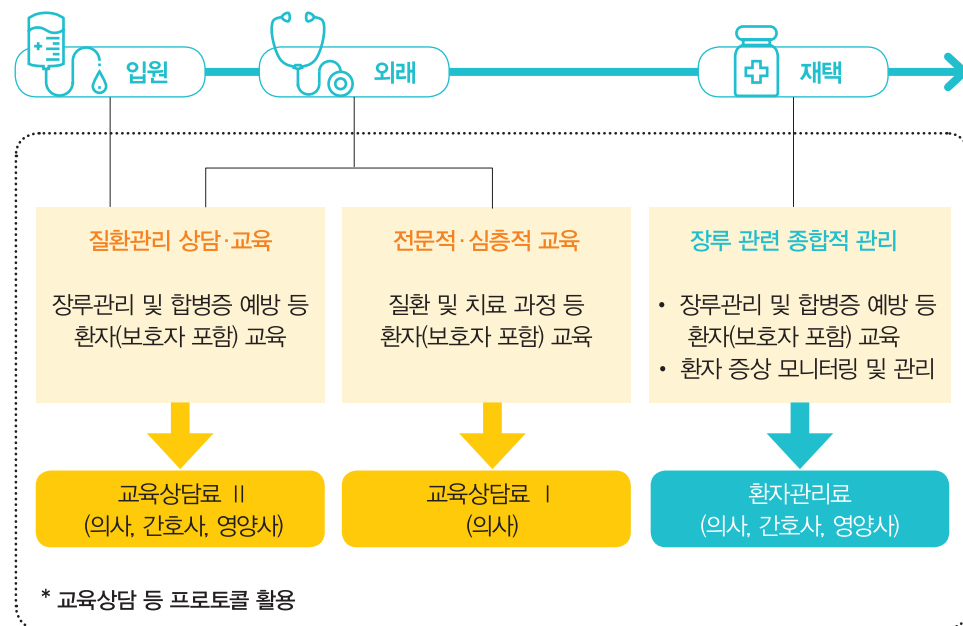
3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안내

문의: 의료수가실 재택의료수가부 우재경 대리
033-739-1553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란?

장루조성술* 후 지속해서 재택관리가 필요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상담과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환자 관리가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추후 대상 범위 확대 예정



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영양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암 산정특례 대상자(특정기호 코드 V193) 중 지속적 재택관리가 필요한 환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 요건

- 참여대상자
 - 장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로,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의 환자
- 참여기간
 - 시범사업 참여 동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최대 관리 기간(12개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교육상담 I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질환의 특성과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하게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을 제공합니다.(일반 진찰행위와 별도로 독립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상담 II

재택의료팀이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하게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 등 교육·상담을 제공합니다.

환자관리

재택의료팀이 환자의 임상 정보, 올바른 장루 교환 여부 등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양방향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자 본인부담률

교육상담료 I, II는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기준(특정기호: V193)에 따라 금액의 5%를 본인이 부담하고, 환자관리료는 본인부담 면제입니다.(건강보험 기준)

암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금액(원)
교육상담료 I	40,520
교육상담료 II	25,530
환자관리료	27,380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암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는 어떻게 되나요?

시범사업 운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로에서 사업지침 및 교육 동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공지사항
- 심사평가원 국민포털(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 심평TV(www.hiratv.or.kr)

간편하게 신청해~
제대로 확인해~

생각보다 많이 나온
병원비로 고민이라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심평원만의 특별 서비스
'비.진.확.서'를 기억하세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홍보대사
가수 '여왕스케치'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에
문의하세요!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터린

음식 포장할 땐
다회용기!

스타램
GOOD

비닐봉투 대신
에코백!

심평원의 ESG로 세(S)상을 지(G)속 가능하도록!

친환경 생활 습관
Environmental

- 탄소배출 절감
- 친환경·녹색제품 구매

사회적 가치 창출 습관
Social

- 지역사회 및 협력사 동반성장
- 지역경제 지원 및 인권존중 문화조성

정당한 의사결정 습관
Governance

- 적극·정확한 경영공시
- 임직원 윤리기준 강화

실종아동 및 장애인을 찾습니다

최준원 / (여)

당시 만 4세 (현, 만 26세)



실종일시 2000. 04. 04.(화)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체특징 어금니 전부 은색도금,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

착의사항 흰색 머리띠, 모자 달린 청색 점퍼, 주황색 긴바지, 청색 운동화 착용

김호 / (남)

당시 만 3세 (현, 만 38세)



실종일시 1986. 11. 04.(화)

실종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체특징 배에 수두자국, 납작한 얼굴, 집에서 호야라고 불림

착의사항 흰색 내의, 얇은 회색 바지, 노란색 슬리퍼, 모자달린 핑크색 얇은 스웨터 착용

이근로(장애) / (남)

당시 만 17세 (현재 만 38세)



실종일시 2001. 01. 14.(일)

실종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신체특징 키 160cm, 지적장애, 팔에 께맨 흉터, 검정색 짧은 머리

착의사항 회색 티셔츠, 흰색 운동화 착용

이훈식(장애) / (남)

당시 만 13세 (현, 만 50세)



실종일시 1984. 07. 23.(월)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체특징 키 150cm, 지적장애, 무릎 및 복숭아뼈 부분 물에 데인 흉터가 있음, 또래에 비해 덩치가 큰 편

착의사항 베이지색 반팔티, 청색 반바지, 운동화 착용